No.20170322-001
제목: 비◇밀◇로◇하◇다◇
저자: 스미노 요루
페이지수: 288
장르: 소설
출간일: 2017년 03월 22일

<내용소개>

큰 인기를 끌며 2016년 서점대상 2위를 차지한《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저자의 신작!
조금 특별한 능력을 지닌 다섯 명의 남녀, 그들의 순수한 청춘을 다룬 소설

2015년《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소설로 등단하여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작가 스미노 요루의 신작이 찾아왔다. 푸른 톤에 학원만화 일러스트 같은 표지와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특별한 시간을 담아냈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은 다섯 명의 고등학생이다. '오오즈카'와 '다카사키'는 남학생, '미키' '구로다' '미야자토'는 여학생이다. 이들이 각각 돌아가며 1인칭 시점으로 다섯 편의 이야기를 진행한다. 제목에 들어가 있는 표시들은 해당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비밀을 암시한다. 처음엔 오오즈카라는 성으로 불리다가 갈수록 '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소년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머리 위에 '?, !, .' 같은 문장 부호로 나타난다. 미키는 상대방의 감정을 바(bar)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파격적인 행동을 즐기는 괴짜 같지만 내면에는 전혀 다른 면모를 지닌 구로다는 '파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녀는 타인의 심장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카사키는 지금은 키가 크고 활달하며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다운 이미지지만, 중학교 때에 키가 작고 곱상한 얼굴이었기에 타카라즈카의 '즈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의 눈에는 타인의 희로애락이 ♣◇♠♡ 로 아이콘화 된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눈이 세서미 스트리트의 엘모를 닮았다고 '엘'이라 불리는 미야자토는 다른 사람이 품고 있는 사랑을 화살표 모양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과 정반대 타입인 친구들과 부딪히며 한 뼘씩 성장해 나간다. 쿄와 미야자토는 서로를 오해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오해를 풀고, 다섯 명은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미키는 단짝이지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파라가 답답하다. 그러나 그녀 덕분에 큰 위기를 무사히 수습하고 진로 고민도 해결하면서 용기를 얻는다. 음악 취향 말고는 정 반대 타입인 쿄와 즈카는 각각 짝사랑 중이다. 쿄는 미키를, 즈카는 엘을, 본인과는 전혀 다른 소녀들을 속으로 좋아한다. 설레어하다가도 겁먹고 진심을 숨기기를 반복한다.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엘은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차츰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다.

다섯 명 모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왜 그런 감정이나 기분이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비밀과 성장담을 순수하게 엮어낸 청춘 소설로서, 미소를 짓고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비,밀.로!하?다
비/밀 \ 로=하*다
비1밀2로3하4다
비♠밀◇로♣하♡다
비↓밀←로↑하→다

<저자소개>

스미노 요루

고등학생 시절부터 집필활동을 시작했다. 데뷔작《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2016년 서점대상 제2위에 선정되며 화제를 모았다. 기타 작품으로《또 같은 꿈을 꿨어》,《밤의 괴물》등이 있다.

No.20170322-002
제목: 눈 속의 소철나무
저자: 토다 준코
페이지수: 461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4월 12일

<내용소개>

'책의 잡지' 선정 2016년도 문고 베스트 10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
애증의 고리 속에서 사랑하는 여자만을 묵묵히 기다리는 남자의 이야기

소설의 시작점은 2013년 7월 2일. 과거에 얻은 화상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마사유키'는 솜씨 좋기로 소문난 정원사다.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조경 일을 해 왔다. 고급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부채집'에 이사를 오게 된 사람이 정원 손질을 마사유키에게 맡기려 하며 옛 기억이 되살아난다. 오래된 흑송과 소철나무가 있는 부채집에 숨겨진 사연. 그것은 마사유키가 온갖 박대에도 굴하지 않고 13년간 지켜봐온 소년 '료헤이'와도 관계가 있었다.

이야기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비밀을 하나 둘 풀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999년, 부채집에 마나베 집안이 이사를 온다. 이혼한 뒤 아들 '후미야'를 바이올리니스트로 키우겠다며 돈 쓰기에 바쁜 엄마,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딸 '마이코'. 평소 여자관계가 문란하여 평판이 좋지 않았던 마사유키의 아버지는 마나베 남매의 엄마와 깊은 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어느 겨울 밤, 그들은 저택 안의 방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다. 후미야 남매의 모친은 목에 스카프가 감긴 채 죽어 있었고, 마사유키의 아버지는 농약을 마신 상태였다. 사건은 동반자살로 종결된다.

마사유키는 혈육인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조부와 부친 때문에 외롭게 자랐다. 그에게 처음으로 애정을 준 사람이 바로 마나베 집안의 딸, 마이코였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지만 각자의 부모가 얽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사유키는 후미야의 부름에 응해 만나러 갔다가 사고로 화상을 입는다. 마이코는 후미야가 혹시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하며 차를 몰고 그들을 쫓다가 젊은 부부를 치어 죽게 만든다. 마사유키에게 남은 것은 몸과 마음의 상처, 1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은 마이코, 마이코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부부의 아들 료헤이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속죄라 여기며 감내하고, 사랑하는 연인 마이코가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2013년 7월 7일, 그녀의 출소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료헤이는 마사유키의 비밀을 알게 되며 그를 피하기 시작하고, 마사유키는 마이코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제목의 소철나무(鐵樹)는 나무가 시들하니 약해졌을 때, 줄기에 쇠못을 박으면 되살아난다는 것에서 따왔다. 마이코는 눈 속에서도 의연한 정원의 소철나무를 보며 "마사유키 같다"고 말한다. 유일하게 행복했던 그 기억이 마사유키를 오랜 시간 버틸 수 있게 만든다.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괴로운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용서가 감동을 선사한다.

<저자소개>

토다 준코

1966 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간사이대학 문학부 독일문학과를 졸업하였다. 2009 년《월도야(月桃夜)》로 제 21 회 일본판타지노벨대상을 받으며 데뷔하였고,《안체를의 나비》로 제 15 회 오오야부 하루히코 상을 받았다. 기타《울며 피를 토하다》,《장례식》,《연꽃의 수식》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No.20170322-003
제목: 대과잉 시대: 사람, 물건, 돈, 에너지가 세계를 삼켜 버리는 시대의 생존 전략
저자: 나카지마 아츠시
페이지수: 224
장르: 경제
출간일: 2016년 03월 23일

<내용소개>

자원이 남아도는 '대과잉 시대', 세계의 위기 돌파 대책을 고민해보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주로 농·어업,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기술직 분야다. 어느 한 쪽을 비난할 수는 없다. 전자는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원하고, 후자는 여건상 그 조건을 채워주지 못한다. 대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식당가와 농촌 지역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노동 인구는 공장공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자국에서 이렇다 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고국에 돌아가거나 새로이 정착하려는 꿈을 갖고 한국을 찾는다. 폐쇄적이고 부정적이던 사회인식도 바뀌고 있다.

리먼 쇼크 이후, 세계경제는 과잉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존의 경제학은 사람/물건/돈/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발전해 왔다.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울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중동 지역 난민들이 유럽을 비롯한 타국가로 몰려들고,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미국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국내에서 몰아내기 시작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한 이후 저가의 물건이 세계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다. 돈도 넘쳐난다. 오히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마이너스 금리가 만연하다. 석유의 입지는 좁아지고 셰일오일·가스 같은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가능 에너지가 등장했다. 에너지 다양화는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를 초래하고, AI 발달과 더불어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 책은 이런 '대과잉 시대'에 직면한 세계경제의 곳곳을 살펴보며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지 고찰하고 있다. 재화의 범람, 인재의 유동화, 화폐의 공급과잉, 에너지 과잉 때문에 막바지에 다른 세계 경제의 현실을 다룬다. 선진국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 가고 고도성장을 내세우던 신흥국의 번영도 종말을 맞이했다. 저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 프론티어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도모,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통한 시장경제성장 실현 등을 꼽는다.

여전히 부족한 재화와 서비스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부족함은 절대적인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과 구조의 왜곡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이끌고 갈 미래, 한국이 세계 무대에 설 자리를 가늠해보고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 지 생각해보자. 이 책은 날카로운 시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서 장: 의심받는 경제적 상식
제 1장: 물건이 남아도는 시대
제 2장: 세계로 유동화 하는 인재
제 3장: 사상 첫 Money 과잉
제 4장: 에너지 과잉 시대
제 5장: 막다른 곳에 몰린 세계경제
제 6장: 세계경제의 난관을 돌파할 방향
제 7장: 일본경제, 최대 역전대책

<저자소개>

나카지마 아츠시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 1952년생이며, 1975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흥업은행(현: 미즈호 은행)에 입사하였다. 조사부 주임부원, 산업조사부 부부장, 파리 지점장, 파리흥업은행사장 등을 거쳐 2000년 조사부장, 2003년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집행 임원 조사부장 겸 미즈호 종합연구소 집행임원 Chief Economist를 역임하고 2011년부터 현직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일본경제의 리스크 시나리오》, 《중국 '인민위안'의 도전》, 《세계경제 연이은 위기》, 《일본의 돌파구》, 《통계로 풀어내는 일본경제 최고의 성장 전략》등이 있다.

No.20170322-004
제목: 이치를 맞추고 싶어하는 뇌: 인지심리학으로 배우는 뇌의 구조, 착각과 오류
저자: 요코사와 카즈히코
페이지수: 128
장르: 과학
출간일: 2017년 01월 20일

<내용소개>

뇌에서 사용하는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오류를 알아보자

미국 캠브릿지 대학교에서 진행한 '단어우월효과'에 대한 실험은 꽤 유명하다. "Aoccdrnig to a rscheearch at Cmabrigde Uinervtisy"처럼 중간 글자가 엉망으로 배열되어 있어도,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만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잘못된 것을 모르고 넘어가기도 한다. 이는 맞춤법이나 철자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뇌의 인지 방법 때문이다. 우리는 단어를 한 글자씩 따로 보고 조합하여 이해하지 않고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한다. 뇌는 맥락 내에서 앞뒤를 맞추는 데 능숙하므로 배열이 조금 잘못 되어도 무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신체의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해 수용된 정보는 뇌에서 최종 처리되며 통합되고, 또 다른 활동명령으로 이어진다. 단시간에 무수한 자극이 입력되므로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뇌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앞뒤 이치에 따라 반응한다. 그것은 여러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구축된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이지만, 때로는 착각과 오류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 타이틀은 뇌의 구조, 착각과 오류를 다양한 케이스를 통하여 재미있게 설명한다.

1장에서는 고무 손 착각 실험과 유체이탈 체험 등 자신의 신체가 존재할 수 없는 곳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뇌가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를 예로 든다. 실험자는 책상 위에 올려진 고무 손이 자기 손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 손과 자신의 진짜 손에 같은 자극을 주며 뇌에 여러 차례 착각을 심어주면 어느 순간 고무 손을 자신의 손처럼 느끼게 된다. 신체소유감각이 전이된 것이다. 2장에서는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도, 통합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앞뒤를 맞춰 나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동일한 발음인데 소리 내는 사람의 입 모양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맥거크 효과'가 대표적이다. 3장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나 미세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부러 간과하여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치에 맞추려는 특성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형태와 색상의 기호에 대하여 문화환경과 개인의 체험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세운 조리에 맞도록 조정 및 변형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처럼 뇌가 자기만의 앞뒤 이치에 맞추려 할 때에 이를 알아채고 접근하는 방법을 다룬다.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현상을 소개하며 뇌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기자신의 행동에 숨어있던 교묘한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유용한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앞뒤 논리 맞추기의 달인
제 2장: 감각을 융합한 앞뒤 이치 맞추기
제 3장: 간과해서 당연한 것
제 4장: 형태와 색상에 대한 호감
종 장: 이치에 맞추고 싶어하는 뇌를 대하는 방법

<저자소개>

요코사와 카즈히코
1956 년생. 1981 년 도쿄공업대학 대학원 종합 이공학연구과(전자시스템 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공학박사. NTT 기초연구소 주간연구원을 거쳐,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 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본인지과학회 회장,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전문분야는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이다. 이과 출신 심리학자의 개척하였다.
저서로는《시각과학》,《주의》,《오브젝트 인지》등이 있다.

No.20170322-005
제목: 스탠포드의 심리학 강의 – 인생이 잘 풀리는 심플한 규칙
저자: 켈리 맥고니걸, 이즈미 에리코(감수/번역)
페이지수: 320
장르: 심리,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0월 06일

<내용소개>

인기 TED Speaker인 저자가 알려주는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줄 25가지 규칙

전문가를 초청해 짧고 강하게 압축된 메시지를 전하는 TED는, 일부 연사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주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박사, 켈리 맥고니걸도 그 중 하나다. 그녀는 스트레스와 의지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전하며 인기를 얻었다. 국내에서도 강연과 저서로 호평을 얻은 켈리 맥고니걸 박사가, 이번에는 자기자신을 변화시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비결을 소개한다.

삶의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어려움과 좌절을 느낀다.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이전과 다른 내가 되어 당당해지고 싶지만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한다.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누구나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본문에서는 25가지로 요약된 인생 레슨을 6개의 카테고리로 묶여 설명한다.
1장에서는 성공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마음가짐과 시간관리기술,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을 높여주는 패션 스타일, 생산성을 높여주는 자세를 소개한다. 2장의 테마는 인간관계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잡담의 효용과 이점, 능숙하게 사과하는 방법, 언행 일치의 중요성 등 여러 방면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췄다. 3장에서는 의욕을 강화하여 유지하는 비결을 제시한다. 달성 가능성을 높여줄 새해목표 설정하기, 목표를 실현하는 동기부여 방법을 살펴본다. 주로 실패를 경험할 때 겪게 되는 마이너스 감정들을 잘 다루고 싶다면 4장을 참조해야 한다. 부정적인 상태에 사로잡히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성장 프로세스를 만들기, 질투와 구설수에 대처하기, 불안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사람들 앞에 서면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 해결하기, 중독과 의존에서 벗어나기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자기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 마지막 6장에서는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한다. 요즘에는 직무와 직급에 상관없이 적절한 리더십을 갖추고 발휘해야 한다. 승진할수록 약해지기 쉬운 공감능력을 단련하고 부하에게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각 레슨마다 핵심 내용을 간결히 서술하고 세부 규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이 책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강의와 저자 본인의 체험에서 뽑아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자기를 바꿔나가는 기쁨의 연속이다. 자신과의 행복한 싸움에서 지혜와 용기를 건네며 보조하는 든든한 지원군 같은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성공을 어떻게 끌어당길까
제 2장: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할까
제 3장: 의욕(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솟아나게 할까
제 4장: 마이너스 감정 및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제 5장: 스트레스를 어떻게 에너지로 바꿀까
제 6장: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까

<저자소개>

켈리 맥고니걸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전문 분야는 건강심리학이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심리학·신경과학·의학의 최신 연구를 응용하여 개인의 건강과 행복, 성공,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공하는 강의가 인기를 얻었고, 〈포브스〉지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20인〉에 선정되었다.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그룹 피트니스와 요가도 지도하고 있다. TED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드는 법〉은 재생회수 1100만 건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프레젠테이션의 명수"라고도 불린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한편 외부 강연과 집필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No.20170322-006
제목: 모든 교육은 〈세뇌〉다: 21세기의 탈(脫)학교론
저자: 호리에 타카후미
페이지수: 206
장르: 교육
출간일: 2017년 03월 16일

<내용소개>

진심에 충실하게,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온 '호리에 타카후미'의 교육론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미래를 기다리는 것. 격동의 현대사를 겪어온 한국사회에서는 '인내'가 곧 미덕이었다. 직장에서 굴욕을 당해도 가장으로써 돈을 벌기 위해, 본인의 인생은 제쳐두고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언젠가 찾아올 영광을 위해 묵묵히 견뎠다. 물론 그런 희생이 모여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만든 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요즘은 신혼부부가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일주를 떠나는 일이 흔해지는 시대다. 삶의 우선 가치를 기존 상식에서 구하려 하지 않는다. 고난과 시행착오, 행복이 뒤섞인 자기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고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일에도 능숙하다. 이전 세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은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의 교육과 학교의 역할을 직설적으로 비판한다. 일본과 한국의 교육현장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러모로 공감이 될 것이다. 저자는 학교가 국가정책의 세뇌 기관이라고 지적한다. 상식을 아이들에게 옮겨 심고, 편하게 사용할 노동자를 대량생산하는 공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며 국경 개념이 희미해진 지금, 국민 양성소로서 학교의 가치는 사라졌다. 정서적이고 배타적이며 인연·인맥을 중시하고 변화를 꺼려하는 L인재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신 합리적이고 관용을 지닌 인간상을 지향하며,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G인재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실체도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 교육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파악하고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형 공부를 지향할 것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능력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몰입하는 능력을 훈련시키고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회사 역시 학교의 연장선에 있는 세뇌 기관이다. 그만두고 싶으면 사실 언제 퇴사해도 상관없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은 것인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현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망설이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저자의 교육론은 본인의 독특한 이력만큼이나 극단적이다. 하지만 안정적이라며 장려되어 온 직업들의 권위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면 수긍하게 되는 면이 있다. 즐기는 것, 일하는 것, 배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개인과 사회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 습득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길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시작하며: 무언가 하고 싶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사람들
제 1장: 학교는 〈국책 세뇌기관〉이다
제 2장: G인재와 L인재
제 3장: 배움이란 〈몰두〉다
제 4장: 세 가지 〈태그〉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제 5장: 회사는 지금 바로 그만둘 수 있다
마치며

<저자소개>

호리에 타카후미

1972 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났으며, 1991 년 도쿄대학에 입학하였다(이후 자퇴). 재학 중이던 1996 년 유한회사 '온 더 에지'를 설립하였다. 2002 년 구 라이브도어의 영업권을 획득하였으며 2004 년 사명을 '주식회사 라이브도어'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겸 CEO 가 되었다. 2006 년 1 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2011 년 4 월에는 징역 2 년 6 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2013 년 3 월 가석방 되었다. 《돈 버는 게 이기는 것》, 《제로》, 《진심으로 산다》, 《99%의 회사는 필요 없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70322-007
제목: 머리 좋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의 보이지 않는 룰
저자: 야마모토 나오토
페이지수: 216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1월 25일

<내용소개>

선뜻 이해되지 않는 직장 및 사회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34가지 힌트

고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어떤 것은 가만히 둬도 술술 풀리는 반면, 어떤 것은 아무리 궁리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정체 상태에 빠진다. 어떤 것은 다음 날이면 산뜻하게 처리되는데, 어떤 것은 악화만 될 뿐 처리되지 않는다. 주변에 조언을 청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관련된 책을 읽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단언하는 정보가 범람하여 더 혼란스럽다. 직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사회와 조직의 구조를 조금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기도 한다. 회사에서 18년, 프리랜서로 12년간 마케팅과 인재개발 분야에서 활약해 온 저자가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는 숨은 '룰'에 대해 속속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어느 곳이나 고유한 규칙이 있듯,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다.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데, 시대 변화에 따라 같이 바뀌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책은 특히 젊은 사원들이 자주 고민하는 테마를 5개 선정하였다. 1장 〈조직과 상사〉편에서는 회사의 상식이 반드시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받아들일 것을 추천한다. 회사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직속상사와의 관계, 남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 내 남녀차별 문제를 다룬다. 2장 〈평가와 인간관계〉에서는 평가제도의 불평등과 스스로에 대한 의심,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평가자료,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집중력과 문제상황에서 안전망이 되어줄 좋은 인간관계를 설명한다. 3장은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내용이다. 일을 쌓아두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의 함정, 최단루트로 일을 끝내는 경우의 단점, 정보의 수집량보다 더 중요한 정리방법, 예습 및 복습 습관 등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출세와 커리어 상승〉을 가져올 보이지 않는 룰을 소개한다. 회사는 강력한 애사정신을 지닌 사원보다 혼자서도 척척 잘 해내는 사원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과제해결보다 과제발견에 주력하며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5장은 〈자기가 있을 자리를 만들기〉다. 장래의 목표 설정, 이직 할 때의 고려 기준, 주의해야 할 조직의 징후 등을 논하며 회사에 수동적인 사원보다는 오히려 회사를 이용하는 사원이 될 것을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룰에 순응하라는 뜻 보다는, 현황을 한 발 먼저 알고 정당한 의문을 계속 가지며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나가라는 의도가 더 강하다. 더 이상 업무 현장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줄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조직과 상사〉의 보이지 않는 룰
제 2장: 〈평가와 인간관계〉의 보이지 않는 룰
제 3장: 〈업무능력〉을 높이는 보이지 않는 룰
제 4장: 〈출세와 커리어 상승〉의 보이지 않는 룰
제 5장: 〈자신이 있을 자리〉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룰

<저자소개>

야마모토 나오토
1964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게이오기쥬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하쿠호도'에서 크리에이티브·연구개발·브랜드 컨설팅·인재개발 등의 분야에 종사하였고 2004年년 퇴사하여 독립하였다. 현재는 마케팅 및 인재개발 컨설턴트로서 활동 중이다. 또한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경영학부 마케팅학과의 강사로서 마케팅과 미디어론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저서로는《Good Career》,《마케팅 기획 기술》,《고양이형 사원의 시대》,《세대론의 덫》등이 있다.

No.20170322-008
제목: 왜 당신의 예측은 어긋나는가?
저자: 고마츠 히데키
페이지수: 209
장르: IT, 비즈니스
출간일: 2017년 02월 01일

<내용소개>

AI 시대에 필요한 경영 지표와 인간 오류에 대처하는 방법을 통계학적으로 알아본다

꾸준하고 급격한 진전을 이뤄온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인간의 생활이 더욱 윤택하고 편리해지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AI에 대한 공포 역시 그에 비례하여 커지고 있다.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 말이다. 이제는 인정하고 자리를 내줘야 하는 분야들도 생겼다. 일정한 규칙을 내포한 계산은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빠르다. 사람의 예측은 빗나가도 기계의 예측은 높은 확률로 들어맞기도 한다. 그런데 반대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예측을 사람이 정확히 해내는 것이 가능할까?

이 책은 인간의 예측이 맞지 않는 이유를 7가지 시점에서 살펴본다. 우선, 인간은 특정 과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통계학이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T·AI(Timeseries Artificial Intelligence, 시간의 인공지능) 개념도 소개한다. T·AI란 판매수량과 생산수량, 재고수량 등 경제 변동량을 계산하는 지능을 가리킨다.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양의 변화를 다루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이다. 불확실성과 변수가 많은 요즘 시대,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용적이지만 이것도 엇나갈 때가 있다. 100% 맞지 않으므로 쓸모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요지는, 엇나갈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이후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판단할 때 무의식적으로 '상식'의 힘에 기대지만 항상 옳은 결정은 아니므로 상황 별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재고'는 한 시점에 양이 얼마나 남아 있는 지를 따지지 말고 전후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에 주의해 파악해야 한다. 구매 심리를 효과적으로 건드리는 무조건적 반사 패턴, 피트니스클럽 탈퇴 이유와 더워지면 중국요리 매출이 올라간다는 속설의 사례를 다루며 그럴듯한 이유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리먼 쇼크를 통해 대형 쇼크 발생 시의 대처를 알아보고, 제때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충격과 과도한 고객제일주의가 빚어낸 회사의 동맥경화 현상을 진단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수직통합 전략 커뮤니케이션, 일본기업 샤프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대만기업 훙하이의 이야기 등을 통해 잘못에 신경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는 앞으로는 재고의 흐름을 파악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요 공급의 차이를 적정 예측오차

로서 유지하는 것을 경영지표에 넣어야 하며, 인간이 저지르는 휴먼 에러를 의식하며, T·AI와 양자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기업에서도 속속 도입 중인 T·AI에 대해 가르쳐 주고,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상식과 통계의 함정을 설명해주는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통계적인 예측은 어느 정도 맞는 걸까
제 2장: 상식이 옳다고 할 수만은 없다
제 3장: 재고는 '시점'이 아니라 '흐름'으로 봐라
제 4장: 그럴듯한 '갖다 붙이기'에 넘어가지 마라
제 5장: 쇼크 발생! 어떻게 해야 할까?
제 6장: 회사의 동맥경화 현상
제 7장: 잘못된 것을 깨닫지 않는다

<저자소개>

고마츠 히데키

NPO 법인 View Communications 의 부 이사장. 1950 년 아키타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전략경영계획 컨설팅펌 (주)ably 를 설립하고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제품사업・신규사업・조직전략 등 광범위하게 활동하였다. 수량화 이론을 접목한 AI(인공지능) 알고리즘, VR 요소기술, 수요예측기술, 소비관측 관련 기술 등의 개발에 진행해 왔다. 2000 년 통산성(通産省)의 지원을 받아 IT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솔루션 연구회(상장기업 약 100 사가 참가)를 모체로, 노무라 종합 연구소·니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NPO 법인 View Communications 를 설립하고 부 이사장 겸 사무국장에 취임하였다. 일본 기업의 수익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를 베이스로 한 최신 IT 기술의 실용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2016 년부터 시가대학특별초빙강사에 취임하였다.

No.20170322-009
제목: 고양이 천사와 과자왕국으로 떠나자!
저자: 나카이 토시미(글), 키무라 이코(그림)
페이지수: 77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17년 02월 18일

<내용소개>

고양이 모습의 천사와 과자왕국으로 모험을 떠난 뒤, 용기를 얻은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소녀 '유코'는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서 핫케이크를 완성해보려고 하지만, 선반에 있던 밀가루를 쏟아버리고 또 실패했다며 속상해 합니다. 지난번에도 도울 때에도 우유를 엎지르고 접시를 깨뜨리는 등 실수투성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수학문제를 틀리고 무언가 자꾸 잊어버리는 등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그 모습을 본 고양이 '냐루'는 유코를 달래주기 위해 과자왕국으로 데려갑니다. 사실 냐루는 고양이 모습을 한 천사입니다. 등에서 흰 날개가 솟아난 냐루의 손을 잡고는 알록달록 빛의 터널을 지나 과자왕국에 도착합니다. 커다란 사탕과 과자가 곳곳에 놓여 있고 달콤한 향기가 떠나질 않는 이곳에서는 제일 맛있는 케이크를 선정하는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왕, 과자대학교의 학장, 제과업계에서 으뜸가는 가게의 점장에 이어 냐루와 유코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됩니다. 이 곳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평가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결승에는 세 케이크가 진출한 상태입니다. 참가번호 1번은 풍성한 과일을 더한 '후르츠 100 케이크', 참가번호 2번은 일곱 빛깔 크림을 올린 화려한 '무지개색 크림 케이크'입니다. 유코는 연신 행복하게 맛을 보는 반면, 다른 심사위원들은 너무 흔하다는 둥 학문적으로 맞지 않다는 둥 하며 불평만 합니다. 결국 참가번호 3번,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들고 나온 핫케이크는 맛조차 보려 하지 않습니다. 냐루는 심사위원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참가 케이크는 반드시 맛을 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지못해 핫케이크를 맛본 심사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 참가번호 3번 핫케이크가 1위로 선정됩니다. 겉보기는 수수하기 그지 없지만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맛 덕분이었습니다.
유코는 자기와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가 대회에서 1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꾸준히 핫케이크 만들기 연습을 합니다. 마침내 자신의 8살 생일, 혼자 완성한 핫케이크를 멋지게 공개합니다.

누구든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동안 발전을 이루고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유코가 결국 핫케이크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케이크 대회에서는 겉모습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점

을,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직접 겪어야 새롭게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깊은 진리를 귀여운 그림과 스토리에 담아낸 동화로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적합합니다.

<저자소개>

나카이 토시미

돗토리 현 출신. 나가사키 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23년간 근무하고 현재 교토 시에서 집필 활동 중이다. 에세이와 육아 책 외에, 아동서 및 그림책《반드시 용기가 생겨나는 마법의 말》을 비롯한〈마법의 말〉시리즈,《나가이 리쿠, 평화를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고 살아온 의사》,《마더 테레사, 사랑과 기도를 담아》,《크리스마스의 노래 이야기》등이 있으며 본 작품《고양이 천사와 과자왕국으로 떠나자!》로 동화작가로 데뷔하였다.

키무라 이코

나라 현에서 태어났다. 아동서·교과서·문예서 등의 일러스트를 그리며 만화가로서 활동 중이다. 삽화 작품《마법의 레시피, Sweets Fairy》등 다수, 만화작품《밤 산책》《콩고물 찹쌀떡》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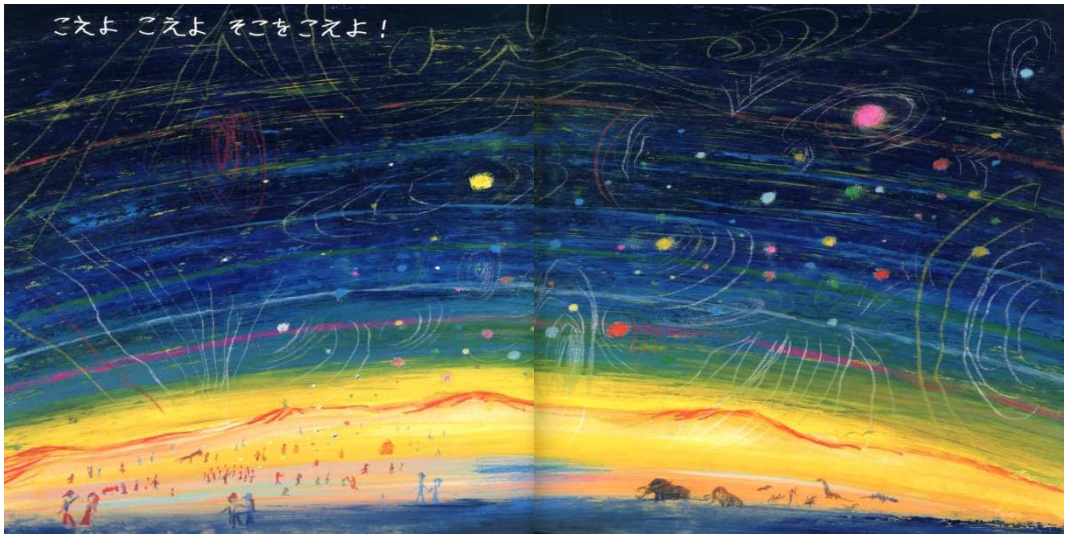
No.20170322-010
제목: 우리들의 메아리
저자: 아라이 료지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7년 02월 22일

<내용소개>

목소리와 메아리를 주제로 삼은 희망찬 합창곡을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태양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안녕하는 아침인사 소리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산과 바다의 소리가 우리들의 거리를 향해 울려 퍼집니다.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소리가, 아주 아주 오랜 옛날의 목소리부터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목소리가 세계를 돌아 메아리로 다가옵니다. 소리가 걷고 뛰며, 산이 되고 바다가 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들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는 미래에 닿을 메아리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 '아라이 료지'가 노랫말을 붙인 합창곡 〈우리들의 메아리〉는2016년도 NHK 전국 학교 음악 콩쿠르의 초등학교 과제 곡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곡을 모티브로 삼아 그림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작지만 굳은 결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는 가사의 분위기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선명한 색채의 일러스트가,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풍경을 연상시키며 노래를 글로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노래의 악보도 수록되어 있어, 같이 불러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아라이 료지

1956 년 야마가타 현에서 태어났다. 니혼대학 예술학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그림책을 그리기 시작했다. 1999 년에 《수수께끼 여행》으로 볼로냐 국제아동문학도서전 특별상, 2005 년에는 일본인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기념문학상을 받는 등 일본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로 알려지며 해외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길 위의 예술제 야마가타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맡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 중이다.